듣는 강론

가톨릭마산

연중 제4주일
해외 원조 주일
2024년 1월 28일
제2602호

더러운 영을 맑히는 성수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신명 18,15-20
화 답 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 2 독 서	1코린 7,32-35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
복 음	마르 1,21ㄴ-28
영 성 체 송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사무처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홈페이지** http://cathms.kr **유튜브채널** 천주교마산교구

김종원 히지노 신부
완월동본당 주임

“사람이 말씀이 되셨다”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시편 119,105)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놀라워했고, 더러운 영들마저 복종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더러운 영은 왜곡된 하느님상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하느님이 주신 참 생명을 방해합니다. 인격적이고 사랑이신 하느님이 아니라 벌주시고, 단죄하는 그릇된 하느님상으로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은 올바른 하느님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갑니다.

소리를 지르며, 진리를 왜곡하는 파괴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바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마태 13,23)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육화되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길 바라셨습니다.

故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철학자 ‘장 기통’(*Jean Guitton:프랑스의 현대 가톨릭 철학자)과 아름다움을 주제로 나눈 대화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요한 1,14)를 “사람이 말씀이 되셨다”로 바꾼다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가장 심오한 정의가 아닐까요?” 하고 반문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1요한 2,17)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굶주리는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들은 바로 우리 시대에도 ‘가장 작은 자’들입니다. 사회적 약자요 소외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이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해외 원조 주일을 맞아, 굶주림과 질병, 기후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세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기로 다짐했으면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굶주리는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들은 바로 우리 시대에도 ‘가장 작은 자’들입니다. 사회적 약자요 소외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이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포선교본당 성가정본당으로 명칭 변경

서포선교본당은 사천본당 소속 서포공소와 진교본당 소속 곤양, 봉계공소를 통합하여 2007년 12월 26일부 ‘서포(가칭)’본당으로 신설(천마교 제2007-221호)하고, 2008년 2월 21일부 ‘서포선교’본당으로 명칭 확정되어 명명되어져 왔습니다.

서포선교본당 서포, 곤양, 봉계 공동체에서 특정 공동체명이 아닌 ‘성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본당명을 변경하기를 희망하여, 본당 신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본당 명칭을 변경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꾸리아/ 2024년 1월 5일 참사회 결정)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기준일
서포선교본당	성가정본당	2024년 2월 1일

‘가엾은 마음’으로의 동행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마태 9,36)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마태 14,14)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예리코에서 눈먼 두 사람을 보셨을 때(마태 20,34), 나병환자가 당신께 도움을 청했을 때(마르 1,41), 외아들이 죽어 슬피 우는 과부를 보셨을 때도(루카 7,13)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을 고쳐주고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엾다는 생각을 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행동하십니다. 12년 동안 하혈하는 여인을, 지붕을 벗기면서까지 예수님께 아픈 이를 데려다준 사람들을 보셨을 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로 행동하십니다. 구원을 선포하시고 병든 이를 치유시켜주셨습니다. 끝없는 자비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죄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죽음 이후 남겨진 모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엾이 여긴 채권자 몇이 남겨준 200만 원이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차비만 겨우 마련해 학교를 다니다 보니 이리저리 오해만 받게 되고 아이는 자퇴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 학기가 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정환경 조사를 통해 아이의 어려움을 알게 된 선생님들이 문제집이나 생리대를 주셨고,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장학금을 받게 되었으며,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말에 여행경비를 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거절하고 가지는 않았지만, 텅 빈 교실에 홀로 등교했던 아이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가여워서 뭐라도 해 주고 싶었던 그 마음들 덕분에 무사히 졸업하여 대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하여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이의 슬퍼하며 드린 기도를 들으셨고, 그 마음을 아셨기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엾은 마음으로 다가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어려운 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여전히 필요한 때입니다. 가엾은 마음을 가지는 것의 출발점은 예수님처럼 약자들의 고통에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이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마음으로 주는 이의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받는 이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어려운 이를 위해 망설이지 않고 행동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분이 하신 삶을 모방하며 가엾이 여기는 온기의 스위치를 켜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서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가리지 않고 나의 마음을 나누고 손길을 나눌 때 하느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강도를 만나 피 흘리는 이를 돌보아준 사마리아인(루카 10,33),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출 수 있는 아버지(루카 15,20)처럼 말입니다. 회피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분명 우리 각자 가엾은 마음으로 하루 살기를 성찰하며 살아간다면 조금은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를 보게 되면 조용히 다가가 사소한 말 한마디나 작은 사랑의 표현들이 누군가의 삶을 밝혀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밝혀진 길을 걸어가는 그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겠지요. 사실 세상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에 의해서 죽음에서 건져진 사람들이니 이웃에게 도움을 건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 찬미 예수님,
하느님을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2024년 해외 원조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도움은 이제 세계로 뻗어 나아갑니다. 이는 지구가 하나의 촌이요,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앞에 모두 한 형제임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11월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 관계사 발굴 사업 학술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춘천교구장이었던 토마스 퀸란(Most Rev. Thomas Quinlan) 주교가 한국 교황 사절로 재임하였던 1953~1957년의 문서들이 소개되었습니다. 토마스 주교는 6·25 전쟁 이후 어려웠던 우리나라 교회를 위하여 교황청에 많은 재정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후 우리나라 모든 교구에 지원금을 비롯하여 수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6·25 전쟁 직후 평양대목구장 서리였던 안 제오르지오 캐롤(George Carroll) 몬시뇰을 통하여 미국 가톨릭 교회에서 많은 구호금과 구호물자를 지원받기도 하였고, 독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가톨릭 복지기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와 질병 등으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풍족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나누려는 마음이 소중합니다. 시몬 베유(Simone Weil)의 말처럼, 우리는 미움을 나누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그 기준도 밝혀 주셨습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마태 7,12) 이런 자선은 선한 의지로 하는 것이기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나눔은 분명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의 나눔으로 새로 맞이하는 갑진년 새해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수 있기를, 더욱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4년 1월 28일 해외 원조 주일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이사장 **조규만 주교**

교구 여성협의회와 창원이주민센터가 함께 소외된 이주민 여성 돕기에 나서기로…

윤종두 요한 신부/ 창원이주민센터장

교구 여성협의회가 ‘이주민 여성 돕기’ 목적 사업으로 2023년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각 지구별 바자회로 모인 수익금 20,362,200원 전액을 창원이주민센터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거제, 마산, 진주, 창원 각 지구 여성협의회와 창원이주민센터에서 추천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주여성들과 이주배경 청소년 그리고 난민여성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이주여성들 중에는 문화적 차이, 언어적 장벽, 차별, 학대 등으로 온전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으며, 자녀들 역시 학교와 가정에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여 고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창원이주민센터와 여성협의회는 일시적인 금전적 도움에 멈추지 않고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방문, 멘토링 등으로 정신적·영적 도움을 통하여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바자회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교우들과 본당 사제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교구 여성협의회 이주민 여성 돕기 바자회 결산(지구별 안내)**

거제지구	마산지구	진주지구	창원지구	합 계
2,570,200원	5,186,800원	7,328,200원	5,277,000원	20,362,200원

지구를 위해 '하다'

강형섭 미카엘 신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장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하느님 피조물의 관리자로서 '그곳을 일구고 돌보는'(창세 2,15) 지혜로운 청지기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피조물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집과 이 집에 함께 사는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경제적, 생태학적 요구를 지탱하는 데 지구의 수용력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기후 변화·위기는 지구에서 자행되는 탐욕과 불평등이 낳은 결과임을 알아차리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보시니 참 좋았다"(창세 1,31)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 하나이면서 관리자인 인간은 그 좋음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창세 2,15). 생명을 보호하고 기르기 위한 우리의 소명은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연관됩니다. 지구를 돌보는 일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창세 9,10)과도 알맞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구에 필요한 휴식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거주지를 되찾아 주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장소와 공간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 상생의 관계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잡초를 풀과 들꽃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하며, 살인 진드기에서 하나의 곤충으로 그 존재 본연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존중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변화이며 회개의 자세입니다.

지구를 돌보는 우리의 실천은 과소비에서 조금은 부족하게 충족하며 즐거운 불편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희생시켜 얻은 끊임없는 경제 성장에 토대를 두는 경제 체계에서 벗어나 공정무역과 공유의 경제 체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 연구 사례는 세계가 약속한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거의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한결같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역사적 선례가 없는 '빠르고 광범위하게' 빨리 패턴을 바꾸어야만 기온상승 1.5℃ 한계선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예언자적 소명으로 기후의 위기를 초래하는 그동안의 이득을 내려놓고, 편리함의 유혹에 맞서야 한다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가톨릭농민회 농민들은 예언자적인 삶으로 이미 30년 전에 유기농법을 선언하여, 자연퇴비를 만들고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유기농산물은 춘계주교회의(1994년) 김수환 추기경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땅을 살리고 밥상을 살리고 우리의 몸을 살리는 가톨릭우리농운동'을 통해 본당 단위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마산교구에서는 각 본당의 우리농 나눔터와 가톨릭우리농직매장(창원 어반브릭스)을 통해 생활공동체 운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지면을 통해 〈지구를 위해 '하다'〉라는 주제로 마산교구 내 유기농 생산자들의 땅을 살리는 유기농법과 먹거리를 살리는 생명운동의 삶의 모습을 나누는 공간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후 위기에 변화된 자세로 다음의 사항을 나와 가정 안에서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농산물(우리농) 이용하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개인 물병 컵 사용하기, 손수건 사용하기, 배달음식 줄이기를 제안합니다.

'가톨릭마산(교구보)' 1월 28일 자부터 매월 넷째 주에 가톨릭농민회(우리농촌살리기운동)의 원고가 게재됩니다.

기억할 선종 사제

차기병(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1988년 2월 2일

교구장 서리 동정

또래사도 리더쉽 함양교육 미사
일시: 2월 1일(목) 13:30
장소: 라마다스위츠거제

교구/본당

또래사도 리더쉽 함양교육
일시: 2월 1일(목)~3일(토) 2박 3일
장소: 라마다스위츠거제(경남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2631)
대상: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회 임원

신앙대학
일시: 2월 3일(토)~4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시: 2월 4일(주일) 10:30/ 장소: 칠원성당

청년간부연수
일시: 2월 4일(주일) 10:0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수) 19:30 회원동성당
창원: 1주(월) 19:3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비대면: 1주(월) 20:00 화상연결
문의: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안내
일시: 2월 4일(주일) 15:00/ 장소: 남성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기 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예수회센터 봄학기 비대면 강좌(3월 개강)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ZOOM, 구글미트) 강좌
내용: ·영성과 철학상담- 아픈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매주 화요일 19:00~21:00, 12주 과정
내용: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화요일반: 19:30~22:00, 13주 과정
목요일반: 19:30~22:00, 13주 과정
신청 및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수시 가능/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2024년 살레시오 여름신앙학교
접수: 2월 28일(수)
대상: 초등부-3학년~6학년/ 중고등부-중1학년~고3학년
문의: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참고

초대 조선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 시복기원 및 현양을 위한 주제어, 독후감 공모전
응모일시: 4월 28일(주일)까지
응모자격: 청소년부, 일반부
응모 및 작성방법 상세안내: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02·2269·0413
주최·후원: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문화홍보국, 가톨릭출판사,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교구 사목국 일반사목부 카카오톡 채널 개설 안내
카카오톡에서 '마산교구일반사목부' 검색

55차 선택 주말 안내

선택 주말은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시: 2월 23일(금)~25일(주일)까지 2박 3일
장소: 마산 성혈 영성의 집(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로 11)
대상: 20~30대 미혼 남녀 누구나
신청: 2월 4일(주일)까지 QR코드로 접수
참가비: 12만 원
계좌: 경남은행 593-07-0022836 예금주 (재)마산교구천주교유지재단
문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마산선택 (카카오톡에서 "마산선택" 검색)
▶신청 접수 마감 후 참가 시간 및 일정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20~30대 미혼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산가톨릭교육관 직원 채용 공고

분야: **주방 1명**(교육관 내 거주 가능자), **청소 1명**(출·퇴근)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신자), 본당 사제 추천서
마감: 1월 28일(주일) 16:00 이전(방문, 우편, E-mail/ 우편 접수는 마감일 이내 도착분까지)/ 면접: 추후 개별 통보
문의: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 (E-mail: cecomasan@gmail.com)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송본당 제22대 사목협의회

시노달리타스: 김현태(토마스)-2024년 친교의 봉사자
시노달리타스: 이상숙(제네뜨)-2025년 참여의 봉사자
시노달리타스: 정봉길(바오로)-2026년 사명의 봉사자
총무분과위원장: 민현규(미카엘)
장례사도직협의회위원장: 김현태(토마스)
재무위원장: 최치영(유스티노)
새복음화위원장: 김문생(제네시오)
재복음화위원장: 남미리(아타나시아)
사회복음화위원장: 박해정(임마누엘)
전례위원장: 이현우(사도요한)
지역위원장: 김옥숙(젬마)
홍보미디어위원장: 안승득(토마스)
청소년위원장: 김준형(라파엘)
시설위원장: 김시홍(프란치스코)

구암동본당 제20대 사목협의회

사목협의회장: 이준홍(요한)
사목협의회부회장: 신옥주(아가다)
총무분과위원장: 진병권(라파엘)
재정분과위원장: 문영미(마리아)
복음화분과위원장: 이윤찬(스테파노)
전례분과위원장: 강문수(요한)
구역분과위원장: 김부자(카타리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박영숙(잔다크)
홍보관리분과위원장: 정윤규(파스칼)
청소년분과위원장: 엄태양(요안나)
시설분과위원장: 신건욱(요셉)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미사 주례	문 의
교 구	1월 29일(월) 19:00	중앙동성당	신년 치유의 밤	김현우 바오로 신부(인천교구)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지금여기사진관
김찬우(사도요한) 010-8949-7901
위치:창원 용지호수앞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 · 266 · 7010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마산 성바오로서원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
문의: 055 · 248 · 3089/ 010 · 9753 · 3089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도마 위에 쓴 글씨

김용철 스테파노 시인/ 가톨릭문인회

비가 내린다.

유리창을 톡톡 두들겨 주는 작은 빗방울의 부딪침,

아프고 힘든 감정의 보풀들을 감싸 안으려는 듯 낮게 떠 있는 구름,

그런 '허밍스러운' 날이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는 행복하다.

내가 책을 읽거나 책상머리에 앉아 학교 숙제를 하고 있을 때면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셔서 간식거리를 만드시곤 하셨는데 나는 음식 만드는 소리가 좋아서 때로는 책을 펼쳐 놓고 읽는 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럴 때면 어머니께서는 부엌에 가셔서 맛있는 간식거리를 뚝딱 만들어 오셨다.

김치만두, 김치만두는 말 그대로 김치로 만든 만두였는데 내 어릴 적에는 형편들이 다 그러하여 가볍게 씻은 김치와 당면을 버무린 속을 가지고 만든 만두였다. 지금도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김치만두보다 더 맛있는 만두를 먹어 본 적이 없다. 부추전, 김치전, 때로는 잘 말려 놓은 떡가래도 구워서 주시기도 하였는데 조청과 함께 먹는 날이면 입이 찢어져 생물 도감에서나 나오는 바다 깊은 물고기가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어머니가 비운 자리에는 아내가 대신하였는데 나의 아내는 작곡가이자 연주가이다.

기분이 울적한 날이면 박자 없는 목수의 힘찬 망치질 소리를 들려주지만 그래도 "thank-you~" (아내가 기분이 좋을 때이면 나에게 화답해 주는 최고의 답변)인 날에는 4분의 4 박자인지 4분의 3 박자인지 모르지만 칼끝의 연주를 흥겹게 펼친다. 도마 위에는 멋진 악보가 그려진다. 그러다가 멋진 악상과 흥이 오른 날이면 어느 유명 난타 공연보다 더 멋진 연주를 하기도 한다.

나의 아내는 소설가다.

부엌에서 들려주는 아내의 이야기는 먼 과거의 이야기도 오늘이 되고 먼 미래의 이야기도 오늘이 된다. 때로는 뜬금없이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면서 도마 위에 칼질의 흔적으로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 미움의 시간들도, 용서할 수 없던 시간들도, 때로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감사했던 시간들도 모두 조목조목 도마 위에 새겨 가며 작은 냄비 속을 채워 간다.

그렇게 채운 음식 재료들이 사랑의 묘약이 되어 '보작보작' 일어날 때쯤이면 아내의 기도 소리가 들린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요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제238차 남성 꾸르실료 실시

교구 꾸르실료(주간: 주성 알렉산델, 담당: 신명균 마르티노 신부)는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제238차 남성 꾸르실료(차수 회장: 이창수 이냐시오)를 실시하였다. 이번 남성 꾸르실료는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22개 본당의 31명(평신도 29명, 사제 2명)이 수료하였다. 교구 사무국에서는 2024년과 2025년 2년간 교구 꾸르실료 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지구별 울뜨레야를 교구 1만 명 꾸르실리스따가 함께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자고 전하였다.

회원동본당 매괴의 모후 Pr. 2,000차 기념 주회

회원동본당(주임: 하춘수 레오 신부) 신약의 성궤 Cu.(단장: 손금자 루시아) 소속 매괴의 모후 Pr.(단장: 윤희숙 안나)은 1월 10일 100여 명의 동료 레지오 단원들의 축하 속에 2,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매괴의 모후 Pr.은 1984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1985년에는 최우수 Pr.에 선정되고, 1991년에는 우수 Pr.에 선정되었다. 2022년도에는 김종연 안나 단원과 강숙자 골롬바 단원이 레지오 30년 근속으로 교구장의 축복장을 받았다. 매괴의 모후 Pr. 단원들은 앞으로도 성모님의 군대로서 서로 일치하고, 단합하여 함께 열심히 레지오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향심기도란 어떤 기도인가요?

윤행도 가롤로 신부/ 월영본당 주임

가끔씩 만나는 이 아무개 신부님은 다른 이 아무개 신부님과 저를 보면 "어이 향심이들 잘 지내나?"라고 하십니다. 이 아무개 신부님과 제가 향심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향심기도, 한 번쯤은 들어본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만 정작 향심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향심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향심기도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향심기도(Centering Prayer), 이름부터 생소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람 이름 같기도 합니다만 향할 향(向) 마음 심(心), 즉 마음을 향하는 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존재의 중심을 향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참 자아)에 현존하시기에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 우리의 내면, 존재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향심기도의 시작은 1970년대 초 미국 메사추세츠 주 스펜스에 있는 성 요셉 수도원장이었던 토마스 키팅 신부와 윌리엄 메닝거, 바실 패닝턴 신부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토마스 키팅 신부는 1971년에 로마에서 개최된 한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 회의에서 바오로 6세 교황은 성직자들에게 수도자와 평신도 모두의 삶에서 복음의 관상적 차원을 부흥시키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중요성을 믿은 키팅 신부는 성 요셉 수도원의 수사들에게 동방의 명상 수련법만큼 현대인들에게 호소력 있고 접근하기 쉬운 그리스도교 관상 기도 방법을 계발하도록 요청하게 되었고, 같은 수도원의 윌리엄 메닝거 수사는 14세기의 익명의 고전『무지의 구름』에서 그러한 기도 방법의 배경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책과 또 다른 관상 서적을 이용하여 단순한 침묵 기도 방법을 계발하고 그것을 '구름의 기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메닝거는 그 수도원에 피정하러 온 사제들에게 '구름의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많은 이들에게 환영받았고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했으므로 키팅 신부는 스펜서의 평신도들에게 연수를 제공하게 됩니다. 같은 수도원의 바실 페닝턴 수사 역시 성 요셉 수도원 밖에서 피정에 온 사제와 수녀들에게 '구름의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머튼은 관상 기도란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믿음 -우리는 오직 이 믿음만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알 수 있다- 에만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한 피정에서 누군가가 토마스 머튼의 이와 같은 관상 기도 정의를 언급하면서 이 기도의 명칭을 향심기도로 바꾸자고 제안하였고 그때부터 이 기도를 향심기도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후반에 왜관 베네딕토 수도원을 통해 구심기도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고, 2000년대 초반 재미교포인 엄무광(1940~2011, 바트리시오) 형제에 의해 전해지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톨릭마산(교구보)' 1월 28일 자부터 매월 넷째 주에 윤행도 신부의 '향심기도'가 게재됩니다.